

英國, 國立公園協會는 '77년에 創設

公園規模 우리보다 크고 資料는 200種 以上

※ 編輯者註：書信보내주신 李景宰本会대의원(서울市立大造景学科副教授·農博)은 지난 8月 3日 환경임업, 환경생태, 생태 공원연구를 위해 89년 7월 30일까지 영국에 체류하기 위해 渡英 한바 있다. 영국의 주소는 本誌 39/40号 90 參照。



第 I 信

LONDON에서 李 景 宰

本土와 웨즈地方에 10個의 국립공원

무더운 8월의 작열하는 태양빛을 아쉬워 하면서 여러분께 인사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채 떠나온지 벌써 4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연구해야 할 일들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 이제 겨울동안 英國의 国立公園資料들을 수집하고 明年 4月 이후에는 몇 군데를 직접 踏查할 계획입니다. England와 Wales(Scotland는 別途)에는 10곳의 国立公園이 있으나 規模가 우리나라 보다는 큅니다. 또한 국립공원에 관계되는 자료는 200種이상 나와있어 우리와는 매우 다른 “先進水準”입니다.

公園協會에 30個分科委員會

영국에도 국립공원협회(The Council for National Parks:CNP)가 1977년에 창설되었으며, 현재는 30개의 分科委員會가 있습니다.

그러나 국립공원관리당국(The Countryside Commission)과는 別途로 自願奉仕者들의 集合體입니다.

公園協會員은 年10파운드

회費내며 공원의 여러문제 奉仕

회원들은 1년에 10파운드(한화 12,450원)의 회费를 내면서 봉사활동하고, 국립공원의 여러가지 문제를 解決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国土의 면적이 南北韓 크기에 国立公園은 10개이니 우리와 規模上 比較가 많이 다른 것입니다.

좋은 자료가 수집되는대로 소식 드리겠습니다.

새해에도 여러분께서 더욱 健康하시기를 祈願합니다.

※ 附記：英國의 경우와 같이 우리나라 국립공원도 이제는 專門管理体制가 되었기에 各管理所別로 氣候·動植物 分布狀況 등 自然生態系는 물론, 모든 資源調查 資料가 集大成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探訪客數도 正確을 期한 資料가 나와야 한다. 이미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는 이러한 基礎資料를 作成하기 위한 管理의 科學化를 指向하고 있으니 多幸한 일.